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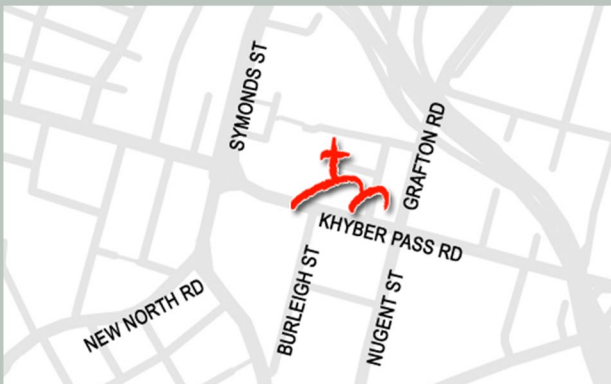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10월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오는 11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 오늘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찬송, 기도, 안건 토의). 한 해를 점검하며 내년을 미리 계획하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 한국 방문 중인 성도들이 많아서 예배 준비와 뒷정리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서로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10월 첫 주일입니다. 한 달 계획을 교회 사역 일지와 섬길 부분을 고려해서 세우므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 학습방법 성경공부인 '신앙의 토대' 주일반이 계속됩니다.

[10월 교회 사역 일지]

- 11일(금): 저녁 기도회
- 23일(수): 3 여선교회 주관 예배
- 27일(주일): 감사주일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10/06
21권 40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14

주일에배	1부 오전 11시20분	2부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138:1-2		인도자
■ 찬송	64장	-----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284장	-----	다같이
대표기도	-----		정관영 장로
성경봉독	창세기 1:2	-----	인도자
찬양대찬양	주는나의참친구	-----	나무십자가찬양단
설교	그런데그땅이	-----	이태한 목사
찬송	365장	-----	다같이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 응답송	445장	-----	다같이
■ 축도	-----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정혜숙 권사	금주기도	오혜신 자매
성경봉독	마가복음 10: 23-27	다음주일	권우석 형제
설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태한 목사		
찬송	325장		
주기도	다같이		

[10월 기도 순서]

- 10월 13일 (주일) / 김병진 목사
- 10월 16일 (수) / 황경임 집사
- 10월 20일 (주일) / 김철재 집사
- 10월 23일 (수) / 헌신예배

[10월 예배 봉사자]

- 예배 안내 / 김병진, 김명춘
-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 주차 안내 / 민광호
-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A

이번 주는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 중인 이광희 장로 (이규임 권사) 소식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간 평안하셨지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로 필리핀 뚜게 가라오 선교사역지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는 이곳 신학교 개설로 한국에서 세 분 목사님과 손님들이 오시고 opening 감사 예배로 바쁜 한주였습니다.

이곳에 사역자를 세우는 신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 주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진의 오른 편에 계신 분이 신학교 학장으로 부임하신 신봉철목사님 가정이고 가운데 분이 김자선 선교사님입니다. 산지족 교회 예배 인도 차 배 타기 전 강가에서 기념촬영했습니다.



주일에는 40분 배 타고 40분 말 타고 산지 교회(라 굼 5교회)에 도착하여 예배드리고 밤 12시에 마치고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 1) 신학교가 잘 진행되어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선교지가 더욱 부흥하기를.
- 2) 김자선, 강정인 선교사님의 건강과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길.
- 3)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1. 성령님의 능력 안에 거하여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 교회가 되도록.
2.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3. 분열과 반목에 병든 한국 사회가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삶의 궤도 수정

몇 주 전 중국의 탐사선 창어(嫦娥) 4호가 달의 뒷모습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달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은 중국이 처음이라고 우주 탐사의 한 영역에서 미국을 처음으로 앞지르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다시 달 탐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중의 우주 대결이 자못 흥미롭습니다.

1970년 4월 11일은 미국 우주개발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3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한 아폴로 13호가 발사되어 이틀 후 달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달에 착륙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행사들의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때 우주 비행사들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모두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망가진 기계를 수리하고 얼마 남지 않은 전력을 아끼며 신중하게 궤도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자칫 각도를 작게 잡으면 우주선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 영원한 미아가 될 위험성이 있었고 각도를 크게 잡으면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엄청난 공기 마찰로 숲 덩어리가 되고, 조종사들은 그 안에서 한 줌의 재가 될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구로 무사 귀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휴스턴 관제센터와 끊임없이 교신이었습니다. 드디어 미세한 궤도 수정을 하는 가운데 추진 엔진이 정확하게 분사되었고 아폴로 13호는 무사히 태평양 바다에 착륙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인은 아니지만, 개인의 영적 삶에 있어서는 궤도 수정이 늘 필요한 존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본래 목적에 맞는 순항을 위해 궤도 수정을 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제센터와 끊임없는 교신으로 관제센터의 판단과 지시에 잘 따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과 교회 공동체의 운행에 있어서 관제센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궤도 수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스피드가 우선이 아닙니다. 인생이나 교회 공동체에는 얼마나 빠르냐 하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방향이 바르지 않고 빠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가? 지금 교회 공동체가 나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 방향인가? 궤도 수정이 필요한 때는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한 해를 출발한지 10번째 달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좌표를 점검하고 관제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궤도 수정을 해야 할 때는 아닙니까?

이태한 목사

창세기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